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
니라"(요 12장 24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오늘(5일) 총진군의 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D-데이
전도자 · 태신자 · 잃은 양들 모두 참석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되어 오늘까지(11
월 5일)까지 약 35일간에 걸쳐 전진대회가
진행되었다.

잃은 양 찾기와 태신자 전도운동을 채택한
이번 복음화 전진대회는 예상외로 전교인들이
이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전진대회 기간중 전도세미나를 통해
전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웠고, 이를
실천키 위해 본교회당을 중심으로 인근 아파트
지역, 주거지역, 상가, 이태원거리까지 흩어
져 노방전도와 축조전도에 열심을 다했으
며, 특히 이번 전도활동에는 교역자 · 장로 ·
권사 · 안수집사 · 서리집사 · 권찰, 그리고
일반교우들까지 참여하여 전도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도를 통하여 결신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이르렀고,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
새신자부 등록장부가 분주했다.

11월 1일부터는 전도부흥회를 개최하여
새신자들의 영적기초신앙교육이 이루어졌
고, 기신자들에게는 다시한번 자기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다.

또 연속기도회(24시간)를 실시하여 14개
교구에 속한 온 성도들이 시간별로 기도회를
가졌고, 각 남 · 여전도회와, 각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들도 모든 행사를 전도전진대회
에 발맞추어 이번 기회에 전도하는 성숙한
신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분들을 모두 초청하여 1부 예배에
서부터 4부 예배까지 그동안 기도한 태신자
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총진군의
날로 설정했다.

그뿐 아니라 본교회에 출석했다가 여러가
지 형편으로 교회출석을 못한 잃은 양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도 배려했다.

한편 복음화전진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참석하는 태신자에게 사랑의 선물을 제공함
과 아울러 교회생활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과 상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통일교재단 대학설립 반대서명운동이 지난주(10월 19일) 실시되었다. (당회장 이종윤 목사가 친필로 반대서명날인을 하고 있다.)

카메라초점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하이라이트인 '전도부흥회'가 지난 11월 1~3일까지 본당에서 화성되었다.

통일교재단 대학설립반대에
지난주 830교회 약 2만명 서명

통일교재단 대학설립 반대서명운동에 지난
주일 830교회에서 18,383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충현교회가 반대서명운동을 추진한
이후 교파를 초월하여 이에 호응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내의 모든 개신교에 속한
교회들이 이 일에 적극 동참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서명운동이 전개될 조짐이다.

시무권사 취임식 예배
오늘 오후 7시 찬양예배시

본교회 시무권사 취임식예배가 오늘 오후
7시 찬양예배시 거행된다.

제14대(1970년)부터 33대(1988년)에 이르는
시무권사들이 지난 10월 24일, 25일 단기교
육을 수료하고, 오늘 취임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에바다부 노방전도

에바다부(부장/ 박민세장로)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태원일대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행사
에 발맞추어 지도 김성윤목사를 비롯한 17
명의 회원들이 열심내어 노방전도에 힘썼
다.

모두가 전도인

나의 부끄러움

소년부 5-8 양 윤 선

노방전도 시간 그 시간은 쑥스럽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길을 갈 때 누구에게 길을 물어 보는 것은 부끄럽지 않지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부끄러웠다. 참 이상하다. 나의 믿음이 약한걸까? 아니면
마음이 어리어서 그런 걸까?

"교회 다니세요."

왜 이 한마디에 내가 용기를 잃고 있을까?

그러나 선생님들의 용기는 대단하시다. 지켜보고 있는 내게도 용기가 솟아났다.
믿음인 것이다!

난 쉽고 쉬운 것을 못하고 있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다니세요." 이 한마디
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힘이 솟았다. 나의 전도지도 점점 줄어갔
다.

영어예배부 이태원에서

영어예배부(부장: 정하우장로, 지도: 마일
수목사)에서는 지금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복음화 전진대회에 발맞추어 지난 10월 2
8일(토)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외국인들로
붐비는 이태원 상가 입구 등 여러 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전단지 배부하면서 전도
의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는 마일수목사를 비롯한 여러명의

영어예배 위원들이 참여하였다.

1교구 신앙세미나 성료

제1교구가 지난 10월 27일 실시한 일꾼신
앙세미나에서 1교구에 속한 성도 3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동교구 남전도회가 주관한 일꾼신앙세미나
에서는 초신자들도 특별초청하여 주안에서
기쁨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충현복지마을
세계 선교훈련원
사랑의 집 건립기금

89년 10월 29일 접수분

충현복지마을 건립과 세계선교훈련원 · 사
랑의 집 건립을 위해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
이 지난주 간에도 들어왔다.

기도하며 시작한 이 일에 온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자.

▲ 홍콩 한국 선교교회 ▲ 양송숙(홍콩성
도) ▲ 박순옥집사(8교구 해화구역) ▲ 김정
태 ▲ 이의복 ▲ 김용숙 ▲ 김석영 ▲ 오영
희

여전도회 특강

11월 10일(금) 갈릴리홀에서

여전도회협의회는 오는 11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갈릴리홀에서 특강을 갖는다.

이번 특강은 "그리스도인의 건강관리"란
제목으로 신성균씨(메테스타 봉사단 단장)
가 강의한다.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 18



본문 / 요 6:41-47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필연적이다 라는 진리에 대하여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도 의심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진리를 의심해서 예수를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치는 교훈 이전에 예수의 인격, 예수 자신에 대하여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고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투의 대상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천지가 개벽될 만한 무시무시하고 놀랄만한 말씀을 드디어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때라고 박수를 크게 치고 예수를 죽일 근거로 잡았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이 있다. 우리가 저 사람의 부모를 알고 있고 제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한 말에 책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를 잡았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 육신의 일

"나 같은 죄인 구원한 사실이 최고의 감사·최대의 영광"

(1) 수근거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거니와 사탄이 주는 열매가 있는데 육신의 일 가운데 하나는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을 못하고 뒷전에서 말하는 것을 수근거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가운데 특별히 정치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자기들에 대한 비판은 봉쇄시키려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언론이란 공적인 기관인데 이 언론을 통제하니까 곁에서 하지를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지혜에서 움직이므로 제하언론이 발달이 되어서 비라를 뿌려든가 혹은 투서를 한다든가 하는 무서운 일들을 저행하였습니다.

수근거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동화하지 않을 때 수근거립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판단력이 서지 않는 사람들이 혼돈이 올 때에 수근거립니다. 또 노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분에 차서 수근거립니다. 이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근거리는 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수근거림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허약한 사회가 되고 그 단체는 병든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수근거리는 일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근거림을 듣고 분해서 항의하고 변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결을 하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염려가 있으니 처음부터 무시를 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일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 수근거림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70일 이내에 알려지게 되어 있고 70일 이내에 알려지면 700일 이내에 알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7년 이내에 알려질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는 드러 납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우선 급한대로 그 일을 막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히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2) 질투와 시기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질투와 시기심이 팍 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왔지, 우리가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다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근거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 무척 강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엇인지 그 조그마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형제간

에 이간되고 부부간에 이혼되고 다른 사람과 원수되고 동업이 깨어지고 나라마다 전쟁이 옵니다. 이 자존심 하나 콘트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동시에 무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2.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수근거림에 전혀 개의치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방어를 하는 말씀도 안하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기방어나 자기 변호 대신에 불쌍한 생명들의 구원문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삶의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자기 변명을 길게 하는 사람은 비굴해 집니다. 욕을 먹으면 오히려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만을 계속 뚫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안이 병병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오셔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서

욕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수근거리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를 생각하고 계속 전진을 해나가야지 수근거리다고 방어나 하고 다니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작용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낫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이

간에이구절을 가지고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신학적 입장을 들어 봅시다.

에라스무스는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하겠지만 인간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나다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 당나귀라는 동물을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당나귀는 앞발을 내밀고 버틴다. 고삐를 아무리 잡아 당겨도 한 번 버티면 당나귀 고삐를 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홍당무를 하나 당나귀 코앞에 매달고 자꾸 앞으로 당기면 당나귀는 끌려 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당나귀의 의지도 배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를 많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결국 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마음에 감동 감화를 일으켜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만드신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뜻은 조금도 개입이 안된다" 어느것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이끌어 댈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끌어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축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곧 성령의 교제케 하고 감동감화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송이 꿀보다 더 달아 꿀송이 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끌다"의 헬라어 단어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진 그물 안에 고기가 꼭 차 있는데 그 고기를 끌어내는 말과 이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어부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끌어내듯이

예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항지를 물리치고 인간을 끌어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항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바둥거리면 비늘만 떨어집니다.

3. 구원받은 자녀의 두가지 확신

(1)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 되었은즉' 여가의 '다'는 영어로 all일뿐 아니라 every, '모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의 '네 모든 자녀'와 '모든 자녀'는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부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16절의 해석에 따라 선택이 구별됩니다. '누구든지'를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고 해석하는 교파가 감리교이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으면에 강조점을 두는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2)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도 한가지 문제를 제기 합니다. 믿고 영생을 얻는가. 영생을 얻은 자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생을 가질 것이라 하지 않고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생을 가진 자가 믿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움직여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사실은 동시적입니다.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요즈음과 같은 과학시대에 예전엔 전에 죽은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앞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특별히 이끌어서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이 최고의 감사요 최대의 영광입니다.

기독교와 통일교와의 다른점

통일교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미 보도한 바와같이 지난주간 우리 교회는 통일교재단 대학살립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온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한국의 개신교단 1천만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하면서 기독교 이단집단의 침투를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본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문선명을 교주로 하는 통일교와의 다른 점을 교리적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다음 내용은 한국종교연구소에서 발행한 "통일교 정체"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편집자 주)

내용	비교	기독교	통일교
하나님관	본	1.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시며 변치 않는 분이시다(고전 8:5~6, 약 1:17).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다(요 3:16).	1. 하나님은 2성성상(몸과 마음)과(남성, 여성)으로 되어 있다 고 한다.
	능	2.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며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신 분이시다(사 43:10).	2. 하나님은 아버지신과 어머니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	3.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시고 하나님뿐이 없는 영이시다(요 4:24).	3. 하나님은 형상(몸)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주역 풀이에)
예수관	본	4.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주이시다(로 11:36, 고전 15:28).	4. 하나님이 아담을 달았다는 것이다(말씀205호)
	능	5. 만물의 창조주(유일신)(사 45:18, 46:9~10)	5. 만물의 제1원인(태극) 원리강론 p.27~28
	성	전지전능하심(사 24~25, 46:6, 7, 43:13)	만유 원력 원리강론 p.28~29
영태	탄	여호와 하나님(출 3:15, 6:2~7)	하늘 또는 하나님 하늘의 뜻 하늘의 음성 하늘의 협조로 표현함
	탄	1. 예수란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다(행 13:23)	1. 예수님은 통일교 문교주의 부하라는 것이다(말씀182호)
	탄	2. 메시아라고 한다(요 4:26)	2.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 사가랴를 아버지(실부)로 주장함
심자가고난	탄	3. 내(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신다고 한다(요 14:13~14, 15:16)	3. 문교주의 생일을 성탄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생일은 문교주의 아들들의 생일과 같이 탄신일이라 부른다.
	탄	4.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다(요 1:1~2).	4. 기도할 때에도 예수이름이 아닌 참부모(문교주부부)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탄	5.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요 1, 5:12)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5.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사가랴 아들이라 한다.
밀음의대상	탄	6.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계 19:16).	6. 예수를 메시아라고 함을 부인하고 성령잉태를 부인한다.
	탄	7.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마 28:19).	7. 삼위일체 부인하고 4위기대(하나님, 참부모, 자녀)를 주장하고 있다.
	탄	8.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마 1:18~27).	8. 인간 원리강론 p.222~224
부활	탄	9. 하나님의 본체(예수)(빌 2:6, 요 1:18)	9. 인간 원리강론 p.222~224
	탄	성령잉태(마 1:18~25)	사가랴와의 관계 잉태 김영운 통일신학과 초교과 83:12호
	탄	하나님의 아들(독생자)(요 3:16)	예수가 사가랴의 아들임 성령잉태 부인
부활	탄	하나님의 예정임(눅 24:25~27, 24:46~48)	유대인의 불신결과라고 함(원리강론 p.149~155) 심자가 죽음을 구원의 실패라고 함
	탄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행 4:12, 요 14:1)	참부모(문선명교주부부)를 재림예수로 믿음
	탄	1. 예수께서는 부활 후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했고(눅 24:39) 구는 생전도 잡수셨다(눅 24:42)	1. 영만 부활하고 육체부활을 부인하고 예수시체는 헤롯왕이 감추어 버렸다는 것이다.
부활	탄	2.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전도도 소망도 헛되도다(고전 15:12~15)	2. 사탄 주권에서 선의 주권으로 옮아온 것을 말한다.
	탄	3.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잡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요 11:25, 3:16, 고전 15:20)	
	탄	4.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물질도 초월한다(고전 15:43, 눅 24:36~43, 요 20:19)	
부활	탄	육신의 부활을 믿음(눅 24:36~43)	예수 육신부활을 부인
	탄	천국에 가심(행 1:9, 7:55~56, 마 16:19)	천국가는 대기소인 낙원에 있음(성화 p.14~23)
	탄	구름타고 오심(마 24:30, 계 1:7~8, 행 1:10~11)	여인의 몸에서 새로 탄생함 원리강론 p.531
부활	탄	하나님나라에서 오시는 예수(마 24:30, 행 1:11, 계 1:7, 계 19:11~19)	문선명교주를 재림주라 함 성서와 원리 85.12호 p.91
	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계 17:14)	문선명교주의 부하 말씀 182호
	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요 14:13~14)	참부모(문선명 부부를 칭함) 이름으로 기도한다.
부활	탄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행 4:12).	예수님은 실패자요 영만 구원하고 재림주는 문선명이다(원리강론 p.153 성서원리등).
	탄	부활이요 생명이이다.	영만 부활하고 육은 없어진다.

구원관	구원관	1. 천하에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구원할 자는 다른 이름이 없다(행 4:12, 요 14:6).	1. 천국은 영적부모(예수님)로부터 태어난 사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구원관	2.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 졌다(로 10:13).	2. 참부모의 축복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
	구원관	3.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엡 1:5).	3. 기독교는 완전구원이 없고 허황된 종교다.
구원관	구원관	4.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사 45:5).	4. 천국에 가려면 사탄에게 인종서를 받아야 한다.
	구원관	5. 심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요 19:30).	5. 인간이 타락한 순서대로 깨끗한 하늘의 혈통을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다.(말씀 12호, p.22)
	구원관	6. 구원은 예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다(살후 2:13).	6. 구원자는 참부모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구원관	구원관	7. 여의도에 통일교 세계본부를 지어야 하늘(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7. 사탄의 영수종을 받아야 한다(성화 69. p.10).
구원관	구원관	8. 사탄 주권에서 선의 주권으로 옮김을 말함(원리강론 p.182).	8. 참부모(문선명부부)의 축복으로 합동결혼해야 됨(말씀 69.3호 p.23)
	구원관	9. 사탄의 영수종을 받아야 한다(성화 69. p.10).	9. 사탄의 영수종을 받아야 한다(성화 69. p.10).
구원관	구원관	1.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 외엔 그의 아들과 천사도 모른다(마 24:36).	1. 1917년~30년(문교주 20년 생) 사이에 재림주가 참부모로 왔다(반증 마 24:14)는 암시다.
	구원관	2. 재림주는 예고없이 통고없이 온다.(살전 5:2, 마 24:38~39)	2. 구름타고 오질 않고 초림예수처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다.
	구원관	3. 예수님께서는 큰 영광으로 능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타고 오신다(마 24:30, 계 1:7).	3. 재림주는 한국말로 온다는 것이다.
구원관	구원관	4.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행 1:11).	4.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것이다.
	구원관	5. 예수는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히 13:8).	5. 재림주는 신부를 찾으러 온다고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구원관	6. 만왕의 왕으로 금면류관을 쓰고 오신다(계 17:14, 14:14).	6. 참부모가 왕이요 왕비이며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다.
구원관	구원관	7.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엡 5:29).	7. 문선명을 재림주라고 하고 있다(85.13호 성서원리)
	구원관	정확한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심(마 24:36)	
	구원관	재림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다(마 24:30, 1:7).	
구원관	구원관	교회와 성도를 신부라고 믿는다(엡 5:29, 30, 계 19:8).	재림예수는 신부(결혼할 여자)를 찾으러 온다는 것이다.
	구원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마 16:28, 25:31~32).	참부모(문선명부부)로 왔다(성화 69. p.23).
	구원관	특정지역(어떤 국가와 도시등)을 지정하지 않음	한국으로 재림한다는 것이다.
구원관	구원관	1. 예수님의 영이다(로 8:9, 행 16:7).	1. 성령을 부인하고 참어머니인 한학자(문교주처)를 성신이라 한다.
	구원관	2. 그리스도의 영이다(빌 1:19).	2. 예수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참어머니가 없다는 것이다.
	구원관	3. 성령은 무소부재다(시 139:7~12).	3. 신령, 성령은 없다.
구원관	구원관	4. 성령은 인격과 지성을 갖고 계신다(요 16:7, 요 14:26, 고전 2:10).	
	구원관	5. 하나님의 영(요 14:16~17, 요 15:26).	
	구원관	보혜사 성령(요 14:26, 16:7)	어머니신(성화69. p.23)
구원관	구원관	믿는 성도마다 역사한다.(행 1:8, 마 10:20)	참어머니신이 성신으로 활동한다.
	구원관	성경자체가 성령의 기록이다(벧후 1:20~21).	원리강론에서 성령론이 없다.
	구원관	구약과 신약 66권임	구약과 신약과 성약(원리강론)이라 주장함.
구원관	구원관	천지는 없어져도 변함 없이 존대한다(마 24:35).	시대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믿지 않고 받든다는 것이다(원리강론 p.9와 통일교 신조 2항).
	구원관	1.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갈 1:7~8).	1. 성경은 신구약만이 아니다.
	구원관	2. 다른 교훈을 멀리하라(골 2:8, 히 13:9).	2. 원리강론(성약서)을 믿고 있으며 성경은 경전으로 받들고 있을 뿐이다.
구원관	구원관	3. 기록한 말씀(성경) 밖에 넘어가질 말라(사 8:20~22).	3. 성약서를 믿고 있는데 영원한 비밀의 진리를 문선명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며 성경 뒤에 숨은 진리를 현대인에게 새롭게 설명한 것이라 한다.
	구원관	4.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눅 21:33, 벧전 1:25) 세세토록 있다.	4. 타락한 인간을 원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소생·성장·완성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소생기의 재창조를 목적으로 "성약서"의 가르침이 필요한.
구원관	구원관	재창조사관 새하늘 새땅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계 21:22~24)	복귀설리관 낙원회복 문선명교주가 이루는 나라(지상천국)성화 69.3, p.23).
	구원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사 45:9~10, 55:8~11, 롬 9:21)	하나님과 인간의 분담제로 이루어짐 원리강론 p.212.
	구원관	복음선교(막 16:15)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원리강론, 통일교회사 p.137. 부부관계가 있어야(말씀 168호, 144호)

※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비교하지 않고서도 쉽게 구분되는 내용이므로 이정도만 비교한다.

가정세미나 지상중계

가정문제의 실제와 처방

엄 예 선 (교수 · 서울여대 사회학과)

I. 건강한 가정의 유형

- 가족원끼리 친숙성과 거리감의 균형이 잘 맞는 가정.
- 갈등의 횟수가 적고 갈등이 일어날때는 회피하지 않고 갈등을 다루어 가는 가정
- 아이가 부모의 갈등에 개입되지 않는 가정
- 부부사이와 자녀사이보다 가까운 가정
- 아이들을 각기 다른 인격체로 대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가정(사랑과 통제가 동시에)
- 개인의 목적과 가족의 목적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정
- 초월적인 가치관을 확보한 가정(신앙)
- 상대방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가정
- 웃음과 유모어가 풍부한 가정
-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고 현실적으로 충족이 가능한 가정
- 자녀의 양육방법 차이점을 타협해서 일관성있게 양육할 수 있는 가정
- 가정내의 규칙이 많지 않고 그 규칙이

분명하고 융통성있게 지켜질 수 있는 가정

II. 부부관계의 유형

1. 네가지 기본적인 욕구와 한가지 자아성취 욕구.

① 기본적인 욕구

- 생리적인 욕구(의식주)
- 안전의 욕구(병, 사고)
- 소속감 애정
- 자존심(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② 자아성취 욕구(자아실현 욕구)

- 진리, 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타인 세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후에 자아성취 욕구가 충족되며 이 단계의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이다.

2. 자신과 상대방을 보는 4가지 기본관점

① I am ok.

You are ok.

② I am ok.

You are not ok.

③ I am not ok.

You are ok.

④ I am not ok.

Your are not ok.

피차 하나님 안에서 죄용서 받은 좋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존경, 신뢰 있을때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3.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대화의 단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3단계 주제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할 수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부부이다.

공유하는 공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거리를 줄 수 있음

4. 부부관계의 특징

- 억누름을 주고 당하는 관계
- 조정하고 조정당하는 관계
- 경쟁하는 관계
- 돌보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관계

◎ 서로를 통해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

III. 갈등해결을 잘 해야 건강한 부부(가정)가 될 수 있다.

1. 갈등의 유형

- 갈등부인
- 갈등회피(아이들)
- 갈등회피
- 양보, 저주는 것
- 폭력, 성격거부를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킴
- 부모, 형제, 자식과 합세하며 배우자 소외시킴
- 절반씩 양보하여 타협하는 경우

◎ 대화로 타협하는 경우

2. 부부갈등 해결방법

- 불만을 품고 형식적으로 대화거나 묵묵히 행하지 말것
- 불만에 대해 타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할것
- 상대방을 심문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의사를 겸손하게 표현할 것
- 자신의 기준이나 집착에 근거하지 말고 실제사건에 근거하여 의견을 밝힐 것
- 과거 상대방의 외모, 가족, 평소 습관등을 통한 인신공격을 하지 말고 현재 이슈만을 논할 것
- 상대방을 타인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것
- 상대방을 미리 규정에 버리지 말것(항상 그렇다. 원래 그렇다)
-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전에 미리 결론을 내지 말것
- 결론으로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간관계 중에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다.
- 우리는 부부 갈등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때 우리를 훈련시키고 원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1989년 11월 10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45과 하나님의 교제

성경: 시 119:97-105

요절: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찬송: 235, 236장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며 그들과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를 맺는가를 배우며 그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를 의뢰하며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실히 아는 가운데 어떻게 평강을 누리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1.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됨에 따라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1)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2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한 예수님께서 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성장하도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2) 생활에 정결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소음공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영혼의 오염입니다. 이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모든 구석에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1-23)."

영혼의 오염에 대한 해결책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 119:9)."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2.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는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짐과 염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죄를 기도를 통해 자백하므로 용서받게 됩니다(요일 1:9)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 1) 영적인 양식과 힘을 공급해줍니다(요 23:12; 엡 3:16).
- 2)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시 119:9, 11; 요일 1:9).
- 3) 기쁨을 줍니다(렘 15:16).

함께 생각합시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히 1:12)
2.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딤후 3:15-17; 시 119:105).
3. 나의 말씀과 기도생활은 어떠합니까?

공동기도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며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여 깨달은 죄를 자백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기도예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